

건조 중인 선박 내부 탱크 바닥으로 떨어짐

< 재 해 개 요 >

‘21. 5. 8.(토) 08:40경 울산시 소재 000사업장에서 건조 중인 선박 내부 탱크 안에서 재해자가 용접작업 중 높은 장소(약 16.2m 이상)의 이동경로를 지나다(추정) 탱크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한 사고임

※ 탱크 바닥의 추락지점 기준으로 상부 수직방향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가장 유력한 장소는 최상부 출입구(해치코밍) 아래에 설치된 고정식 수직사다리 구간임

□ 사고형태 및 피해정도 : 떨어짐 / 사망 1명



【사고 추정 모습】

□ 재해예방대책

○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한 추락방지조치 강화 실시

- 수직사다리 등받이울 설치 또는 플랫폼 안전난간 상부 연장

※ KOSHA GUIDE(G-3-2019) 및 KS B ISO(14122-4) 참조

- 등받이 울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직사다리 이용 근로자 개인용 보호 장비(안전대 등) 제공

○ 올바른 수직사다리 사용방법 준수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

- 수직사다리 승하강 시 3점지지(두다리, 한손 또는 두손과 한다리 등) 및 달줄(달포대) 사용을 철저히 실시하도록 안내 및 지속적인 관리 철저

본 사례는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조선업재해예방센터에서 제작하여 제공하는 것이므로 동종 시설의 자체점검 및 적절한 조치실시, 근로자교육 자료 등으로 활용 바랍니다.

<인터넷 주소 : www.kosha.or.kr/자료마당/재해사례/국내재해사례/조선업 클릭>